

티베트스님 중국경찰 고문으로 사망

유희사태 계속되자 티베트 망명정부 “국제사회가 개입해 달라”

중국의 티베트 지배에 항의하는 티베트인들의 시위에 중국정부가 무력진압에 나선데 이어 최근 중국 경찰의 고문으로 스님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유희사태가 계속되자 티베트 망명정부는 “유엔이 나서달라”며 국제사회의 도움을 호소했다. 말레이시아의 부디스트채널은 “티베트인 출신 가초 스님이 중국 경찰에 의해 칭하이 감옥에 6개월 동안 구금됐고, 구금기간 행해진 고문과 학대로 인해 사망했다”고 1월 23일 전했다.

부디스트채널은 “중국 당국은 하이난현에서 2011년 7월 한 수도승을 체포했다. 베이징에 거주한 작가 위즈가 이 스님을 구하기 위해 여러 경로로 구명 활동을 펼쳤지만 스님은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병원에서 옮겨졌다. 스님은 1월 22일 사망

했다”고 보도했다. 출신 가초 스님은 2006년 달라이라마의 불교 의식에 참가했다가 중국 경찰로부터 지명수배됐다. 스님은 2008년 3월 티베트 자유 등을 요구한 평화집회에도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스님의 사망과 관련해 “감옥 밖에서 발생한 포로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

또, AFP통신은 중국 무장경찰이 설 연휴인 23일 종교탄압에 항의하는 티베트 스님들을 향해 발포해 1명이 숨지고 32명이 부상했다고 현지 스님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26일 다수의 외신에 따르면 중국 티베트 자치구와 쓰촨성 사이에 있는 간쯔티베트 자치주에서 23일에 이어 24일에도 반중 시



2010년 10월 티베트인들이 중국의 사상교육과 무력진압에 항의하다 중국군인들과 대치하고 있다.

위가 발생했다. 중국 치안부대는 시위대에 게 발포했으며 중국 관영언론도 발포 사실을 보도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톰상 상하이 티베트 망명정부 총리는 “유희사태가 더 이상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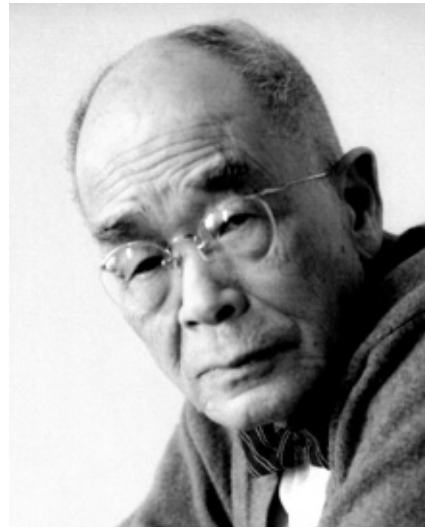
생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개입해 달라”고 호소했다.

미국도 빅토리아 놀란드 국무부 대변인이 24일 티베트 유희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주동섭 · 노덕현 기자**

선禪을 ‘Zen’으로 만들다

세계의 불교학자(4)

스즈키 다이세쓰 前 오타니(大谷) 교수



영어로 선(禪)은 ‘젠(Zen)’으로 알려져 있다. 서양 사람들은 ‘젠’이라는 용어를 통해 불교와 동양의 신비를 떠올린다고 한다. 그들에게 ‘젠’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단어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일본어로 선을 뜻하는 젠은 서구인의 의식 속에 구체적인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는 언어로 자리 잡았다.

‘젠’을 영어의 고유명사로 정착시킨 사람은 일본의 대표적인 불교학자 스즈키 다이세쓰(鈴木大拙: 1870~1966)교수이다. 서양에 선불교 개념조차 없던 시절, 스즈키 교수는 미국으로 건너가 선을 젠으로 번역해 서양인들에게 소개했다. 젠은 선의 일본어 발음이다. 일본에서는 선을 젠(禅), 선종(禪宗)을 젠슈(禅心)로 발음한다. 일본인인 그가 선사상의 바탕조차 없는 서양에 선을 소개하기 위해 자국어인 ‘젠’을 그대로 차용한 것은 어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선을 전통으로 계승하고 있는 한국불교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다.

스즈키 교수는 해외에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1870년 이시카와 현(石川縣) 가네자와(金澤)에서 태어난 스즈키 교수는 21세 때 동경으로 올라와 도쿄전문학교(現 와세다 대학)에서 영문학을 배우며 엔가쿠사(圓覺寺)의 임제종(臨濟宗) 승려 이마키타 코겐(今北洪川) 지도하에 참선에 몰두했다. 스승 이마키타의 입적 후에는 그의 후계자 사쿠 소엔(釋宗演)의 밑에서 선을 수행했다. 그렇게 참선수행에 정진하던 스즈키 교수는 소엔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다이세쓰(大拙)라는 법명을 얻었다. 그의 본명은 원래 데이타로(貞太郎)였으나 이때부터 다이세쓰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스즈키 교수의 스승 사쿠 소엔은 1893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만국종교대회에 참가하는 등, 일본불교와 선사상을 서구에 알리는 데 노력했던 인물이었다. 소엔의 후원으로 스즈키 교수는 27세인 1897년 미국으로 건너가 일리노이주 라살시에 있는 오픈 코트 출판사(The Open Court Publishing Company)의 편집원으로 근무하게 됐다. 이때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을 영어로 번역하고, 《대승불교개론》을 출판해 일약 신진 불교학자로서 서구에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렸다.

1909년, 12년의 미국생활을 접고 39세의 나이로 귀국 했다. 그 해 10월 도쿄대학 강사와 학원대학 강사가 됐고, 나중 학원대학 교수로 승진했다. 그 뒤 1921년 교토(京都)에 있는 오타니(大谷) 대학 교수가 됐고, 영문서 《이스티븐 부디스

트(The Eastern Buddhist)를 창간, 불교 사상을 해외에 소개했다. 1950년에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하와이대·예일대·하버드대·프린스턴 대학 등에서 불교사상을 강연했다.

스즈키 교수는 1966년 96세의 생애가 끝날 때까지 왕성한 연구 활동을 통해 영문 저서 30여 권, 일본어 저서 120여 권을 남겼다.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저서로는 《선과 일본문화(Zen and Japanese Culture)》, 《Essays in Zen Buddhism》

임제종 승려에게 참선 지도 받고

영문저서 30여권 통해 선불교 알리

에리히 프롬 등 서구 심리학자들

불교사상 통한 연구 학문 교류

들이 있고, 일본에서는 이와나미(岩波) 출판사에서 출판된 총 30권으로 이루어진 《스즈키다이세쓰전집(鈴木大拙全集)》이 있다.

오늘날 에리히 프롬(Erich Fromm: 1900~1980)이나 칼 구스타프 융(Carl Gustav Jung: 1875~1961) 등 서양의 대표적 심리학자들이 불교 사상을 언급하는 저본에는 선불교를 서구에 알리는 데 일생을 바친 스즈키 다이세쓰 교수의 노력 때문이다. 특히 스즈키 교수는 융과 두터운 친분을 맺고 폭넓게 학문 교류를 했고, 융의 초대로 동서양 연구자들이 모여 종교학·심층심리학·신비주의 등을 논의하는 에라노스(Eranos) 회의에 출석하기도 했다.

스즈키 교수의 영향을 받은 융은 “선은 서양 철학이 말하지 않는 것의 모든 것”이라고 말했다. 융의 표현이 옳고 그름을 떠나 당시 서양 지식인들에게 선을 알리고 회자시킨 점은 스즈키 다이세쓰 교수의 가장 큰 업적이다. **주성원 기자**

명상, 기도의 본질 일깨우다

캐나다 서해안 명상캠프 늘어...기독교계 성찰의 계기로

명상은 불교의 수행 방법이고 기도는 기독교의 신앙 방법이다. 그런데 기독교계 사회에서 명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기성 교단이 이에 대응해야 한다면, 그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까?

캐나다 온라인 매체 타임스콜로니스트(www.timescolonist.com)는 1월 14일 ‘기도보다는 명상이 캐나다 서해안 지역민들의 마음과 정신을 다잡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캐나다 서해안 지역이 명상과 기도의 대중적 관심을 가능하게 하는 무대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지역에서 ‘명상에 대한 관심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울증과 신경증의 발병과 치유 과정’을 추적해 온 정신치료사(psychotherapists)들이 “두 증상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보다는 불교적 명상으로 치유에 더 큰 도움을 받고 있으며, 명상 캠프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근거하고 있다.

그렇다면 명상캠프의 수적 증가가 불교계의 확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일까?

타임스콜로니스트에 따르면, “뉴 에이지(New Age) 성향이 강한 캐나다 서해안 지역의 특성을 감안할 때, 명상이 종교적 수행으로서 선택되기보다는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찾는 정신적인 여정으로써 선택되고 있다고 보여진다”는 것. 즉, ‘불교 개종’으로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풀이했다.

반면 타임스콜로니스트는 “명상캠프 참가자들 중에는 고학력의 부유한 지도층이 많다”고 전제하고, “기독교계가 명상캠프에 쏠리는 대중적 관심의 단초를 살피며 명상과 기도를 비교하는 노력을 보인다. 기쁨과 보다 조화로운 관계를 발전시키도록 도운 작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에크하르트 톨레(Eckhart Tolle, 밴쿠버 거주)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편안한 자세로 바라보는 명상은, 지금의 기도 방식으로는 얻기 힘든 영적 경험을 준다”며 “지금의 기도는 신을 찬양하고 죄를 고백할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어, 토마스 멀튼(Thomas Merton)의 관상기도(centering prayer)의 미덕이 절실하다”고 말해, 타임스콜로니스트의 보도를 뒷받침했다.

20세기 기독교 예큐메니칼리즘(ecumenicalism)의 선구자인 토마스 멀튼은 반평생 선불교·도교와의 대화를 시도하고 깨달음의 목표가 결국 기독교와 같다고 이해함으로써 20세기 뉴에이지 흐름에 크게 기여했다. 뉴에이지란 기성종교(개신교, 가톨릭 등)의 획일적인 예배·찬양·믿음에서 벗어나 영적 깨달음을 토대로 자아를 발견하려는 서양 종교계의 혁신운동이다. **오종욱 편집위원**



캐나다 서해안 지역민들 사이에 불교명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해당 기독교계는 자성적 성찰로 조심스럽게 대응하고 있다. 사진은 ‘기도’의 본래의 방법과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밴쿠버 성공회의 대성당엘렌 클락-킹(Rev. Ellen Clark-King) 부주교

한편 타임스콜로니스트는 대중적 관심을 받고 있는 불교 명상에 대한 캐나다 서해안 지역 기독교계의 반응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밴쿠버 성공회의 대성당 부주교 엘렌 클락-킹(Rev. Ellen Clark-King)은 “불교의 명상에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묵상과 관조라는 기도 본래의 가치를 그리워하는 기독교도의 이탈된 선택”이라고 풀이하고, “명상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캐나다 서해안 지역민들은 여전히 ‘잠정적 기독교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캐나다 기독교계는 찬양·고백·중재를 강조하고 있는 지금의 기도 방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한 엘렌 클락-킹 부주교는 “기도의 첫 번째 단계로 ‘무엇을 경험하든지 자신을 열고 감자 안아라’, 두 번째 단계로 ‘어떤 감정이 일어나도 기꺼이 받아드려라’, 마지막으로 ‘공포, 노염, 불행조차 반갑게 맞아라’”고 역설했다. 불교 명상의 대중적 관심에 직면한 기독교계가 지금의 기도의 방식을 성찰하고 대중들에게 다가설 비상구를 찾고 있다고 풀이되는 대목이다. **오종욱 편집위원**

태국 스님 1127명 재난 지역 순례법회

1월 2~25일 23일간

6개 지역 365km 걸어

지난해 사상 초유의 홍수 재난을 겪었던 태국에서 1127명의 스님들이 23일간 ‘재난지역 순례법회’를 봉행했다.

태국의 온라인 매체 아시아뉴스넷(www.asianews.it)은 “빠툼타이(Pathumthani), आयुध्या(Ayudhya), 수판부리(Supanburi), 나 콘 파 톰(Nakhon Pathom), 논타부리(Nonthaburi), 방콕(Bangkok) 등 재난 지역의 주요 사찰을 방문하는 365km 여정의 ‘재난지역 순례법회’가 1월 25일 성료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1월 2일 담마까야사(Dhammakaya Temple)에서 시작돼, 25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붓다몬돈사(Buddhamondhon Temple)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린 이번 ‘재난지역 순례법회’에서 천여 명의 스님들은 23일간 도보(徒步)로 이동하며 재난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해당 지역 주요 사찰에서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재난지역 순례법회’의 대단원은, 복구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붓다몬돈사 순례였다. 홍수 재난으로 경내·외 모두 침수돼 부처님 생애를 표현한 높이 16m 불상과 경전을 새긴 1418개의 대리석 비석 등이 수해를 입었던 이곳에서, 스님들은 홍수 재난 직후 태국 불교계 안팎에서 조성된 1300만 달러의 복구지원금을 전달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창사 19주년 기념

마하연투어 (주)에스큐 성지순례

미안마

◇ 미안마 성지순례 출발 : 2월 23일

◇ 미안마 완전정복 양곤|바간|만달레이|혜호 7일 1,920,000원 (유류할증료 불포함)

3월 출발

◇ 양곤|바간|혜호 6일 - A형 1,690,000원 B형 1,650,000원

◇ 양곤|바간|만달레이 6일 - A형 1,690,000원 B형 1,650,000원

◇ 양곤|바간|혜호|짜이티오 7일 - A형 1,840,000원 B형 1,790,000원

◇ 양곤|바간|만달레이|짜이티오 7일 - A형 1,840,000원 B형 1,790,000원

* 전 일정 특급호텔, 가이드 기사 팁, 호스카 포함 / 유류할증료 불포함

인도 완벽 8대성지 9일 / 10일 (요금문의)

스리랑카 전통불교 성지순례 6일 (요금문의)

장사 | 장가계 | 원가계 | 천문산 5 ~ 6일 (요금문의)

미안마 종교성 관련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 02)365-7747

서울 금강불교대학

2012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본 대학은 한국 불교중흥과 불교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국내 최고의 교수진을 초빙하여 운영하는 불교요양대학입니다. 입학의 문은 신도뿐만 아니라 불교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교과과정안내

과정	기간	교과목	요일	자격	시간	서류 및 전형방법	인원	수강료
불교학	1학년	초발심자경론 불교학개론, 근본불교 불교문화사	월	불교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응시 가능	· 1교시: 18:30 ~ 19:50 · 2교시: 20:10 ~ 21:30	입학원서1부(5,000원) 반명함판사진 3매 1차 서류, 2차 면접	약 200명	무 료
	2학년	한국전대종사 밀교사상, 천태수행론 금강경	화	본교 초급과정 수료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법사과	1년	법화경, 포교방법론 천태사교의, 유마경 중관사상, 천태정토 불교의식, 유식사상	수	본교 중급과정 수료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 1교시: 18:00 ~ 19:20 · 2교시: 19:30 ~ 20:50 · 3교시: 21:00 ~ 22:20	지원서 1부 반명함판사진 3매 서류전형	약 100명	50만원 (한 학기 25만원)

원서접수

원서교부	접수 및 면접 장소 · 일시	위치 및 교통
우면동 관문사 : 02.3460.5300 신촌 성통사 : 02.336.2052 봉선동 명락사 : 02.889.7272 구로 명화사 : 02.854.0196 임우동 삼통사 : 02.496.3803 성남 화정사 : 031.745.1482	평택 법장사 : 031.655.9090 수원 용광사 : 031.255.4105 구리 금성사 : 031.563.9364 안양 대안사 : 031.459.3666 안산 월광사 : 031.419.5048 부천 천화사 : 032.671.5353	· 접수 : 2011년 11월 21일 ~ 2012년 2월 17일 18시까지 · 면접 : 2012년 2월 19일(일) 오전 11시 · 장소 : 관문사 2층 금강불교대학 * 합격자는 면접 후 개별통보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56 대한불교천태종 우면산 관문사 2층 TEL 02)576-6401 / FAX 02)574-1541